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

국회도서관 편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2012년부터 구축해 온 '역대 국회의장단 구술채록'을 활용하여 시리즈 형태로 엮은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를 기획하였다. 구술총서는 구술자의 성장 과정, 정계 진출 및 의정 활동기, 국회의장 재임기 등 생애 전반을 다루고 있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구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기록물과 사진을 함께 수록하였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장단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국회 역사를 충실히 보존하고, 연구자들이 의정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술총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

일
러
두
기

- 이 총서는 국회도서관 ‘국회의장단 구술기록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산출물 중 구술 녹취문을 정리·수록한 것이다.
- 구술 면담은 국회의장 퇴임 후인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 구술자의 어투를 최대한 전달하려 노력하였으나, 발언 취지 및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거나 생략하였다.
- 구술 내용은 구술자의 경험과 기억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구술 영상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의 구술기록 콘텐츠에서 볼 수 있다.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08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도서관

펴내는 글

‘기록은 역사입니다’

2008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개관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긴 글귀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472년간의 역사를 빠짐없이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입법부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기록물의 이관·수집·보존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정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는 2012년부터 국회의장단과 주요 정치 인사의 구술을 영상으로 채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술 내용에 관련 기록물과 사진 등을 더하여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를 발간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책이자 여덟 번째 총서로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의장님의 구술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 의장님은 제15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내리 당선된 6선 의원으로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좀 두려워해야 하지요.”

“국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자부심과 책임 의식,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정세균 의장님은 국민을 생각하고 행동하며, 좀 더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치 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활동을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했으며,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쓴 결과, 국회 청소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구술은 역사를 기록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공식 기록과 연계되어 맥락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이해와 관점을 제공합니다.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또한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흐름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 구술총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정세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발간을 위해 애쓴 국회기록보존소 직원들에게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지식 보고로서 정보와 기록의 축적 및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2.

국회도서관장 현진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나길!

우리 국민은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언제나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왔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분연히 맞서 싸웠으며, 때로는 강건한 신념으로 목숨까지 바치기도 했다.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진시켜왔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온 우리 국민의 응집된 힘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발전사와 궤를 같이한다. 그렇기에 오늘날 더 커진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에게 큰 빛을 쬔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그리고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로 거듭날 때, 비로소 국회는 역사적 소임과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첫째, 국회는 갈등, 차별, 분열, 불공정으로 점철되어 있던 지난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공적 책임성을 다하며 국민을 하늘같이 섬겨야 한다. 국민이 없는 국회는 허망한 모래성일 뿐이다.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취임 일성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
자고 말씀드린 까닭이다.

둘째,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다면, 국회는 언제든 답을 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세우는 중심이 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내일에 대한 희
망과 미래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
회’다. 의장 재임 중에 여야를 설득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한 이유
이기도 하다.

셋째,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입법, 행정, 사
법의 세 축이 잘 돌아가야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살아난다. 특히 국회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기관으로, 가장 대표성이 크다. 단순히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기능주의를 탈피하고, 능동적 의회주의를 바탕으로 국
정 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정파의 작은 이해를 뛰어넘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정착될 때, 공동체 구
성원 모두가 편히 일상을 누릴 수 있다.

나는 1996년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새 시대, 새 정치, 새 인물’을 국민께 약속드렸다. 새 인물은 국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결정되며, 새 정치는 국회가 바른길을 나아갈 때 시작된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새 시대가 열린다. 항상 그래왔듯, 국민은 앞서서 새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도 서둘러 그 부름에 답해야 한다.

이번 총서를 계기로 치열하게 걸어온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께 정치를 배웠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꿈을 꾸었다. 이번 책에는 담기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포용과 공정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다. 아쉬웠던 때도 있었지만 어느 한순간도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던 적은 없었다. 나의 정치는 균형이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고 신명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끝으로 내게 자성과 통찰의 시간을 선물해 준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의회주의자로 살아가고자 했던 정치인 정세균의 작은 발자취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유의미한 이정표가 되길 소망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